



미 증시, 금리 급등 속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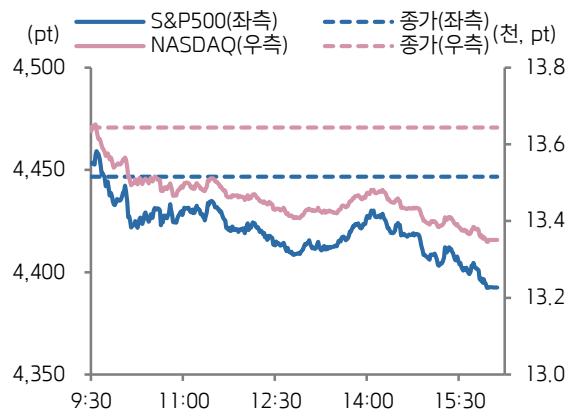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4 일 (목) 미국 증시는 개별 기업 실적, 금리 급등 등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 전일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급등한 S&P500 지수는 골드만삭스 등 실적, ECB 통화정책회의, 미국 3 월 소매판매 결과를 소화하며 0.2% 상승 출발. 미국 3 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 증가(예상 +0.6%, 전월 +0.8%), 근원 지표는 전월대비 1.1% 증가(예상 +1.0%, 전월 +0.6%)하며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 ECB는 기존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 하지만 개장 후 발표된 4 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의 65.7pt(예상 59.0pt, 전월 59.4pt) 서프라이즈 발표 및 뉴욕 연은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전일 하락했던 미국 금리(10 년물 +14bp, 2.83%)가 크게 반등하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다우 -0.33%, S&P500 -1.21%, 나스닥 -2.14%, 러셀 2000 -0.99%).

추가적으로 15 일 (금) 곳 프라이데이 휴장을 앞둔 불확실성, 장 초반 매파적이었던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간 교전이 격화될 것을 전망하면서 미국이 8 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는 등 주말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5 월 50bp 금리 인상이 매우 합리적인 옵션”이라는 등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짐. 한편 ECB 통화정책회의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채권매입 프로그램 계획을 유지. ECB 는 현재 높은 불확실성 환경을 고려해 통화정책에 대해 선택권, 점진주의,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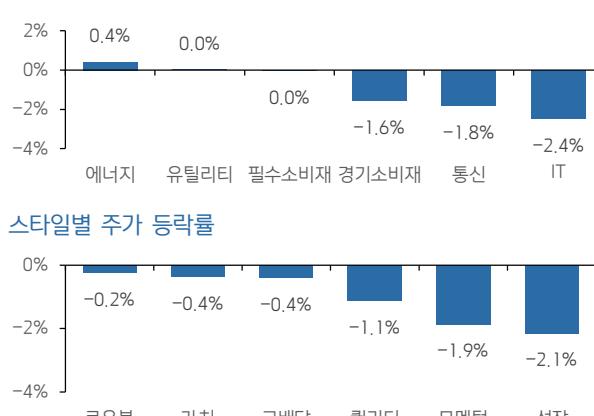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0.4%), 유ти리티(+0.01%)를 제외하고 전부 하락. 낙폭이 가장 커던 업종은 IT(-2.4%), 통신(-1.8%), 경기소비재(-1.6%). 종목별로 테슬라(-3.7%), 애플(-3.0%), 엔비디아(-4.3%) 등 대형 기술주들이 금리 급등 부담에 하락세를 보였고, 트위터(-1.7%)는 테슬라 CEO 머스크가 420 억 달러 인수 제안을 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 개장전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0.1%)는 견조한 트레이딩 사업부 성적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소폭 하락, 모건스탠리(+0.8%)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힘입어 상승. 웰즈파고(-4.5%)는 매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큰 폭 하락. 나이키(+4.7%)는 UBS 가 견조한 북미 수요를 바탕으로 매수 투자의견을 강조하면서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92.59	-1.21%	USD/KRW	1,224.45	-0.23%
NASDAQ	13,351.08	-2.14%	달러 지수	100.30	+0.42%
다우	34,451.23	-0.33%	EUR/USD	1.08	+0.01%
VIX	22.70	+4.03%	USD/CNH	6.39	+0%
러셀 2000	2,004.98	-0.99%	USD/JPY	125.88	+0%
필라. 반도체	3,028.22	-2.9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844.14	-0.01%	국고채 3년	2.882	-12.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07	-9.5bp
Eurostoxx50	3,848.68	+0.54%	미국 국채 2년	2.454	+10.6bp
MSCI 전세계 지수	695.91	+0.85%	미국 국채 10년	2.828	+12.9bp
MSCI DM 지수	2,985.07	+0.8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19.32	+0.8%	WTI	106.44	+2.1%
MSCI 한국 ETF	68.73	-2.16%	금	1976.8	-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1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2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0.7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1) 미국 증시, 성장주 중심으로 급락(S&P500 -1.2%, 나스닥 -2.1%)
- 2) 금리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민감한 모습
- 3) 미국 소비자 관련 지표들이 견조한 했던 점은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요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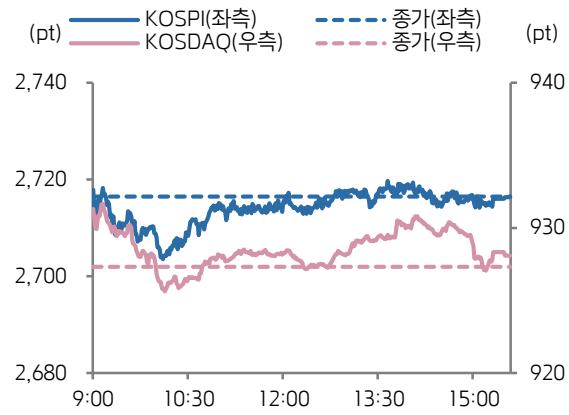
15 일 (금) 국내 증시는 간밤 급등한 미국 금리, 급락한 미국 증시 영향에 오전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오후 견조했던 미국 소비자 관련 지표, 차주 본격적인 국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며 추가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미국 증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65.7pt vs. 예상 59.0pt, 전월 59.4pt), 매파적인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등으로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가 다시 2.8%를 상회하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 특히 뉴욕 연은 총재가 5 월 50bp 금리 인상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옵션”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전보다 더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점은 부담.

엔비디아(-4.3%), 애플(-3.0%), 테슬라(-3.7%) 등 대형 기술주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국내 증시 관련주들에 대해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3 월 중순 이후 코스피의 반등 폭이 미국 나스닥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대형 기술주들에 비해 국내 종목들의 벤류에이션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증시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해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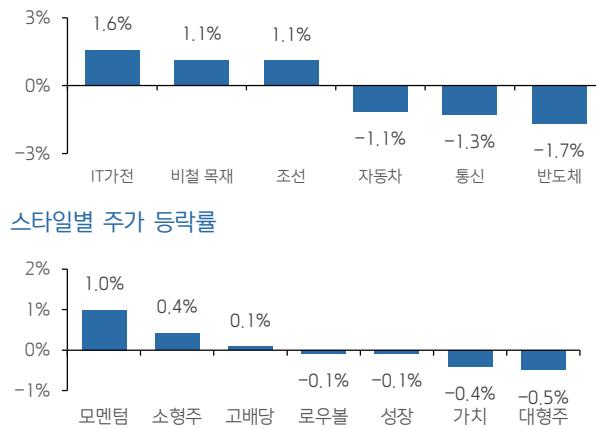
추가적으로 미국 4 월 소비자심리지수와 함께 발표된 미시건대의 5 년 예상 인플레이션 지표와, 향후 12 개월 물가를 설문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전월대비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